

SK케미칼, 상생 카페테리아 운영

협력기업들과 상생으로 통합 공동발전 ... 기술 · 대금결제 개선

SK케미칼(대표이사 김창근 부회장)이 상생 Cafeteria를 설치·운영하며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SK케미칼은 7월21일 위키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60여개 협력기업을 초청해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Cafeteria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창근 부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협력기업이야말로 SK가 주창하는 행복경영의 대상이며 협력기업에도 기술제공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함께 상생경영을 강화하겠다” 강조했다.



SK케미칼의 상생 Cafeteria 계획은 SK케미칼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은 ▲기술 및 경영자문 ▲인력교류 확대 ▲대금결제 시스템 개선 ▲파이낸스 재정지원(긴급자금 지원) 4개 분야에 걸쳐 Cafeteria에서 물건을 고르듯 지원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SK케미칼은 상생 Cafeteria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2004년부터 전자구매시스템을 정립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구매시스템에 등록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

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 증대를 극대화할 수 있다.

SK케미칼은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운영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정하는 동시에 일정평가를 거쳐 전략적 관계를 맺은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복안도 수립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7/22>